

# 현실감각 일깨우는 조정자 역할

김진무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전**통적으로 불교 교단은 이른바 '칠중(七衆)', 즉 비구·비구니·사미·사미니·식차마나·우바세·우바이 등으로 구성된다. 칠중은 다시 재가의 출가의 둘로 크게 분류된다. 불교교단의 전개와 전파에 있어 그 주체는 출가의 뛰어난 스님들이 담당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재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했다. 최근 이런 재가 가운데서도 '거사불교'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필자의 전공인 중국불교에 있어서 유명한 거사들에 대하여 그 역할과 생애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오늘의 거사들이 참다운 불법 실천을 위해 어떤 실행과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귀감으로 제시한다.

## 거사란?

연재를 시작하기에 앞서 '거사'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근본불교에서 거사의 호칭은 당시 인도의 사성계급과 관련해 나타난다. <장야합경> 권22에 바라문종과 찰리종 등을 언급하며, "거사(居士)는 여러 가지 기예를 익혀 생활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설명에서 거사는 사성계급 중 평민에 해당하는 '바이사(vaisya)'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승불교가 흥기하면서 거사는 점차로 '장자(長者)'와 혼용되기 시작한다. 거사를 나타내는 범어는 gṛha-patī인데 이를 중국에서는 가라월(迦羅越)로 음역하고, 의역으로는 장자·가주(家主)로 하고 있음이 그 증거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거사'와 '장자'는 그 의미가 다르게 쓰인다. <유마경>에서는 분명하게 '거사'와 '장자'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는데, 거사는 '백의(白衣)거사'라고 해 일반적 평민을 의미하고, '장자'는 불교를 깊이 이해하고 비교적 부유하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중국에서 불리는 거사

그러나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거사' 호칭은 인도에서처럼 거사와 장자로 구분되지 않게 된다. 본래 중국에서는 <예기(禮記)>의 옥족편(玉藻篇)에 "거사는 도와 예속에 머무는 선비이다(居士, 道藝處士也)"라고 주석해 있고, <한비자(韓非子)>의 외저설좌(外儲說左)에는 "학문에 머무는 선비(居學之士)"라는 말이 있어 이것이 거사라는 용어의 호시로 본다. 따라서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의 거사는 세

속적인 관직과 부와 명예를 초탈해 학예와 도를 즐기는 선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거사의 용어는 비록 인도불교 번역어로 사용됐지만 본래 지닌 함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에 따라 주석이 필요하게 됐는데, 승조(僧肇)의 <주유마힐경(維摩詰經)>에 구마라집(鳩摩羅什)의 거사에 대해 "외국(즉, 인도)에서는 많은 재산이 있어 즐기는 사람을 거사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천태 지의(智顓)대사는 <관음의소(觀音義疏)>에서 "거사란 재화를 많이 축적하고 가업이 풍부하여 이루어진 이름"이라 말한다.

이러한 주석은 중국인들이 본래 지니고 있는 거사의 개념과 약간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이후 수대(隋代) 혜원(慧遠)의 <유마의기(維摩義記)>에는 "거사는 두 가지다. 첫째는 재산을 많이 축적한 '재물에 머무는 사람(居財之士)'이고, 둘째는 재가에서 수도(修道)하여 '집에 머무는 도사(居家道士)'를 거사라 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중국적인 '학문(불교의 가르침)에 머무는 선비'의 거사개념이 불교에 스며든 것이 짐작된다.

'거사'는 일반적으로 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술이나 중국의 전제에 '거사'가 꼭 남성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여거사(女居士)'의 표현이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거사'의 개념에는 남·녀 모두가 포함된다. 또한 중국에 있어서는 일반 민중으로부터 고관대각, 군왕·황제 등 신분에 상관없이 불교에 깊은 이해를 가지거나 혹은 거대한 재시(財施)를 일으켰다면 모두 거사의 범주에 포함시켜

야 한다. 거사불교에는 거사 교의에 대한 학습과 수행, 실행활동, 그리고 여러 호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중국불교사에서 거사들의 역할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까? 실제적으로 불교의 발원지인 인도와는 문화적 풍토가 전혀 다른 중국에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거사불교의 역할은 거의 결정적이었다. 그것은 중국 역대 거사와 거사불교에 대한 자료를 일괄한다면 바로 긍정하게 된다. 거사와 거사불교에 관련된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 거사 불교관련 자료

거사불교와 관련된 자료는 다섯 종류로 분류된다. 첫째가 바로 거사전(居士傳)의 유형이다. 가장 유명한 것은 청대 팽소승(彭紹升·法名際南)의 <거사전>과 <선여인전(善女人傳)>이고, 명대 도명잠(陶明潛)의 <선각집(先覺集)>, 원신(圓信)·곽응(郭應)의 <선각종승(先覺宗乘)>·<우바이지(優婆夷志)>와 주시은(朱時恩)의 <거사분등록(居士分錄)>, 심태(心泰)의 <불법금탕편(佛法金湯編)>과 하수방(夏衡芳)의 <명공법회지(名公法喜志)> 등이다.

이 가운데 <거사전>은 가장 전형적인 거사 전기로 전56권의 방대한 저작이다. 총 217명의 거사를 표제로 설정하고 내부에 등장하는 인물까지 포함하면 거의 300여 명이 넘는 거사들의 전기를 싣고 각 전기에 출전근거를 설명한다. <거사분등록>은 거사전의 형식이나 그 인물의 범위를 선을 수행한 거사로 한정해 약 110명 거사들의 전등을 다뤘다. <불법금탕편>은 제왕·명신·거유(巨儒) 등이 행한 불교의 호법과



그림·김흥인

관련된 전기고, <명공법회지>는 명공(名公), 즉 유명한 관료와 종의열사 등 거사의 전기를 기술했다.

둘째는 유명한 스님의 사적을 기술하면서 거사를 함께 기재한 자료다. 승우(僧祐)의 <홍명집(洪明集)>, 도선(道宣)의 <광홍명집(廣弘明集)>·<집고금불도론형(集古今佛道論衡)>, 언중(彦宗)의 <집사문부승속등사(集沙門不應拜俗等事)> 등 수십 종의 문헌은 불교와 도교·유교 등과의 논쟁 및 여러 사건을 기록하면서 거사들이 찬술한 저작이나 행적 등을 함께 기록했다. 이는 거사불교의 면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셋째는 거사들이 스스로 찬술한 호법론(護法論)이다. 주로 <홍명집>과 같은 문집에 게재돼 있다. 이사정(李事政)의 <내덕론(內德論)>과 장상영(張商英)의 <호법론(護法論)>, 유밀(劉謫)의 <삼교평심론(三教平心論)> 등이다. 이런 저작들은 그 사회적 영향이 매우 지대해 불교가 중국에 뿌리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넷째는 각 종파의 사서(史書)와 전기다. 도원(道原)의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과 보제(普濟)의 <오등회원(五燈會元)>, 구여(瞿)의 <지월록(指月錄)> 등이 있다.

각 고승 전기와 거사들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다섯째, 각종의 소설과 개인문집이다. 유의경(劉義慶)이 찬술하고 유효표(劉孝標)가 주석한 <세설신어(世說新語)>와 언지추(彦之推)의 <언씨가훈(彦氏家訓)> 등이 있다. 당시 시대적 상황과 거사들의 불교사상이 반영돼 거사불교의 방제자료를 형성한다.

## 거사불교의 역할

위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거사불교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역할을 했다. 우선 여러 형태의 호법활동이다. 중국에 불교가 처음 전래되었을 때 현저한 문화 차이 때문에 전통적인 사상을 고집하는 중국인들은 불교를 극심히 비판하고 배척했다. 이런 상황에서 거사들, 특히 제왕과 대신, 귀족, 관료, 문인 등 지배계층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호법행위는 불교 사원과 승단을 보호했다. 거사들의 외호가 있었기에 중국에 불교가 뿌리내릴 수 있었다.

둘째 막대한 재물을 보시했다. 거사들은 정치사회적인 호법과 동시에 사찰 건립과

유지, 보수에 끊임없는 재시를 했다. 그 결과 중국불교는 통치자에 의해 자행된 폐불·멸불의 시련속에서도 면면히 그 맥을 전승할 수 있었다.

셋째 교의에 대한 다양한 개진이다. 학문 소양이 깊은 여러 거사들이 있어 교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 나아가 새로운 교의가 거사로부터 제시되기도 했다. 위진(魏晉)시대 도생(道生)의 <둔오성불론(頓悟成佛論)>은 당시 유명한 문인이었던 사령운(謝靈運)의 적극적인 지지로 그 내용이 더욱 풍부해졌다. 부대사(傅大士)는 초기 선사상(禪思想)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또 이통현(李通玄)의 <화엄론(華嚴論)>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지금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 세 가지뿐 아니라 거사불교는 황상승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했다. 불교가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현실감각을 일깨우는 중요한 조정자 역할도 했다.

이제 이런 중국 거사불교의 토대로부터 거사들 각각의 행적과 사상과 역할을 조명해 그들의 불교인생과 거사불교의 역사를 따라가 보자.

##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 히말라야 산상 염불기도 법회

히말라야 선원 - 네팔

## 해상 참선 법회

덕적도 바지를 해변 - 대한민국

www.begood05.com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 고무신코 만행화

방한용달신 발,마춤형 제작 방한용부츠

최고의 선물

조각무명 특무명 지압갈상

가격: 60,000원 / 120,000원  
규격: 215-290mm / 215-220-250mm  
색상: 회색, 검정

가격: 80,000원 / 10,000원  
규격: 215-290mm / 215-290mm  
색상: 회색, 검정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지민)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부산: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광주: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진승복 062)228-2870 / 서울: 부산승복 02)738-8407  
대전: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김윤경승복 064)724-7999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빛다불교점 054)655-2525